

明珠玉燕奇合錄 攷(I)

金 鎮 世*

1. 序

이 「明珠玉燕奇合錄」(명주옥연괴합록)¹⁾은 조선조 후기에 創作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小說이다. 이 작품은 현재 한글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애당초 漢文으로 씌어진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글로 씌어진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의 原本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그 筆寫本만이 한 秩 嶺南大學校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李樹鳳 교수는 그의 「明珠玉緣奇合錄研究」에서 이 작품이 金澤東교수의 주선으로 嶺南大學校 도서관 당국이 舊王室 姻戚古老人 金尙宮에게서 구입 소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筆者가 1967년 봄 尹伯榮女史에게서 購入하여 大邱大學 도서관에 納品한 것이기 때문이다.

25권 25책으로 한 秩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은²⁾ 작품 內的인 면에서 뿐 아니라 작품 外的 문제에도 흥미로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로 이 작품에는 轉寫(筆寫) 年代가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조선조 후기의 장편소설의 경우, 그 창작연대는 커녕 그 전사연대를 밝히고 있는 것조차 펴 드물다.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소장본 「玩月會盟

* 국어국문학과 교수

- 1)明珠玉燕奇合錄이라 했는데 이 「燕」字가 釋然치 않다. 처음에 「緣」字였던 것이 漢字의 筆寫過程에서 「燕」字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까닭은 이 작품이 明珠의 因緣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2)李樹鳳은 그의 「明珠玉緣奇合錄研究」에서 26卷 26冊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寔]의 경우 정도다. 그런데 이 작품도 轉寫에 종사한 40餘名 가운데 약 四分之一에 해당하는 10명 정도의 사람만이 그年代를 밝히고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연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 「明珠玉燕奇合錄」에 나타난 轉寫年代는 꽤 귀중한 자료 중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필사년대는 다음과 같다.

권 20에는 「무술년」이라고 되어 있고 권 23에는 「무술년 필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권 22에는 「무술 십월 이십 구일 필서」라고 되어 있다.” 이 「무술년」을 살펴보면 1898년에 해당이 된다. 李樹鳳교수는 “이 作品은 哲宗(1850~1863) 때 동궁 밀서상궁 유춘, 서상궁 등에 의해 필사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는 「대한 개국 오백 사년의 철종황제 후궁 김상궁 철영씨가 쓴 글시」(권 1, 2).

「철종황제 후궁 김상궁 철영 글시」(권 3, 4, 5, 6, 7, 8) 「더동궁 지밀 서상궁 글시」(권 14, 15).

「더동궁 지밀 서상궁 유춘 글시」(권 16, 19, 20).

등의 기록이 있다. 이것들은 이 작품을 轉寫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尹伯榮女史가 쓴 것들이다. 그런데 李교수는 여기서 “철종황제 후궁”이라는 것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이 작품의 轉寫年代를 哲宗으로 잡았으나 사실은 轉寫者들이 밝히고 있는 “무술년”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무술년”이 바로 1898년인 것이다.

둘째로 이 작품에는 그 필사자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거니와 조선조 후기 소설에서 필사자를 밝히고 있는 작품은 꽤 드문데 이 작품이 바로 그러한 예라는 것이다.

권 1에는 「대한 개국 오백 사년의 철종황제 후궁 김상궁 철영씨가 쓴 글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권 2에서 권 13까지와 권 17, 18 등은 모두 김상궁 철영씨가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권 14에는 「더동궁 지밀 서

3) 권 1과 권 2에 「대한개국 오백 사년의 쓴」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尹伯榮女史가 쓴 것이다. 尹女史는 純祖 三女 德溫公主의 令孫女(1891~1981)이다. 통칭 荊洞宮 할머니로 통했다.

4) 이렇게 밝힌 사람은 尹伯榮女史이다.

상궁 글씨」라고 되어 있고, 권 15, 16, 19, 20, 21 등은 모두 지밀상궁 서유순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권 22 만은 상기한 두 사람이 나누어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권 24, 25 등은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나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이 두 권의 필체만은 宮體가 아닌 여염집 女人의 글씨체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哲宗의 후궁이던 金尙宮 철영씨와 苧洞宮 至密尙宮이던 서유순씨 그리고 姓名 不知의 다른 두 사람의 女人 등 모두 네 사람에게 依해 轉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李樹鳳교수는 “며동궁 지밀 서상궁 유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너 동궁시 밀서상궁 유춘 글씨”로 잘못 읽은 탓으로 過誤를 犯하고 있다. 며동궁(苧洞宮)은 純祖의 三女인 德溫公主가 南寧尉 尹宜善에게 下嫁하여 生活하던 宮名으로 지금의 明洞 聖堂 앞 부분에서 中央劇場 쪽까지의 곳인데 뒤에 李完用에게 沒收당하였다는 說이 있는 곳이다. 또 尙宮 중에 “밀서상궁”이라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유순”을 “유춘”으로 잘못 읽은 대목도 있다. 워낙이 이 작품이 宮體 흘림체로 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

세째로 이 작품은 「글월」지에 필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當時 宮中에서 요즈음처럼 윗 어른들을 직접 뵙고 問安인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해진 樣式에 의하여 晨省과 昏定의 인사를 글로 써서 사람을 시켜 윗 분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男性의 경우는 그것을 漢文으로 써서 「封書」라 했고 女性의 경우는 그것을 한글로 써서 「글월」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어느 宮女가 그 글월지를 모두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뒤집어서 그곳에 이 작품을 옮겨 쓴 것이다.

以上の 세 가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1895년에서 1898년의 4년 동안에 哲宗의 後宮이던 金尙宮 철영씨와 苧洞宮 至密尙宮이던 서유순씨, 그리고 姓名 不知의 여염집 女人 등 四名이 글월지를 뒤집어 그곳에 옮겨 쓴 매우 貴重한 작품이다.

2. 連作的 性格

조선조 후기에 와서 우리 나라에서는 長篇小說이 相當數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長篇에서 우리는 큰 두 갈래를 발견하게 될 것 같다. 그 하

나는 한 작품으로 그 소설을 완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작품
題目은 다르지만 이야기나 事件이 계속되는 경우라 하겠다.

前者의 경우, 한 작품이 그것에 붙여진 題目 하나로 끝이 나기 때
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後者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야기가 代
를 이어가며 連續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二代에 亶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三代 또는 四代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
런데 이 작품은 四代에 걸쳐 이야기가 展開되는 경우이기에 餘他의 작
품과 다른 면이 있다 하겠다.

「玄氏兩熊雙麟記」의 끝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제 남 이후가 인종 턴즈돌 돕사와 대공을 즈로 세워 공이 우조에 두렷하고
덕이 화이를 품동하니 이른바 명슈죽빅하고 공개턴하하여 화형린자하니 승상이
칠십지년에 이르러 벼슬을 드리고 한가히 고당에 누워 양주의 영효를 바들시
년이 삼십이 못하여 제후는 벼슬이 본직 비서자 턴호소 우부 도어스 병부 매스
마 평제후에 턴하 병마 절제스 오국공을 겸함미 그 영복이 턴하에 짝이 업고
유너 원비 하부인이 삼즈 일너요 윤부인이 삼즈 일너요 또 처음으로 어든 여자
아올러 칠즈 삼너가 개개히 린화봉취요 춘방헌림 금문지스 리부상셔 흥문판 턴
호소 총지 평남후 좌승상 진국공 원비 주부인의 삼즈 일너요 철부인의 삼즈를
두고 육시의 일너 잇스니 개개히 사가옥수요 치가교육이라 오공과 진공의 종전
설화와 즈너 성혼이며 개세흔 충효의 관절함미 무궁함되 소설이 잇는 고로 짜
히고 오직 그 디간만 기록함지라 승상과 장부인의 별세함면 설화와 웅년 친년
등의 취실함면 기록함 설화는 다 후록에 자세히 잇거늘 차던은 다만 사지시너
난해 가스를 낫낫치 다 일기하여 너미 후세 사람이 턴을 지어 써 세상에 전함
미 양 천공의 위인이 일쌍 통년 즈분 고로 슈제함되 양옹방닌디연이라 함앗시
너 차차 유전 만세함라」(卷 10)

이 記錄으로 미루어 우리는, 오국공과 진국공의 종전 설화와 子女의
成婚談은 이미 所說한 「玄氏兩熊雙麟記」에 記錄한 바 있고 또 승상과 장
부인의 別世하던 설화와 웅년 친년의 娶室하던 설화는 後錄으로 미루었
고 此傳에는 다만 兩玄公의 爲人이 一雙 龍麟 같음을 감안하여 그 사연
을 주로 記錄하였음을 알겠다. 그런데 「明珠奇逢」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화설 대왕 인종년간의 비서각 태학소 우부 도어소 병부상서 겸비장군 평제 후 현수문의 조는 조예니 승상 증현공 현택지의 장조오 케부상서 장지의 외손이라 공의 용모 기지를 의논컨대 응준 일각이오 위봉지안의 호치 유순이며 년 협호귀라 신위 늙연하고 풍직 동탕하여 흉중의 경련위디홀 지략을 감초와시며 그 빈힘 충효의 관일호든 본연의 다 하였는 고로 번거히 올니지 아니하고 조너 성호하던 설화를 기록호시……경제위 낭부인귀 칠조 이녀를 두어시니 개개히 곤산 미옥이오 려슈 겸금이러라 경제후의 일대 금문직소 출방한림 증서사인 리부총지 겸 평남후 경문의 조는 증예니 옥관선풍이 남던 미옥을 교락하며 려슈 진금을 단련한 잠미봉안이오 년협단순이라 흉중의 계세안민지지를 품어 충효성질이 흉연이 대순의 풍이러니 현일지표와 통봉지지니 형제 이인이 일실의 상화하고 일도의 소군하여 이신일심으로 동경서벌하여 남이북적을 경벌호리 덕망이 화이를 진동호니 공개턴화하고 위진히니하여 화형린각하고 명슈죽빅호리라」(卷 1)

이 기록으로 우리는 「明珠奇逢」이 현택지의 두 아들인 수문과 경문의 사적을 담은 「玄氏兩熊雙麟記」의 續篇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明珠奇逢」의 내용인즉 오국공과 진국공에 대한 설화와 그들의 子女들의 成婚談으로 채워져 있음도 알게 되었다.

한편 「明珠玉燕奇合錄」의 끝 部分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초후 비연의 이르도록 마장업시 지너니 원너 오진 낭공의 소적은 현시낭웅 쌍인귀의 희비하고 틱소공과 제왕의 소적은 명주거봉의 희비하고 현시 제인의 후소적은 현시팔용귀 희비하나 옥화군주의 옥연귀합과 연의열의 명주 거합이 귀이호무로 현승상 회빅과 병부 회문의 소적을 초출하여 명주옥연귀합축이라 하여 후세의 전하여 선악의 보용호를 밝히미니 후인은 다시 현시 후록을 이어 붙지어다」(卷 25)

이 기록으로 우리는 「明珠玉燕奇合錄」은 「明珠奇逢」의 續篇이고 또 이 「明珠玉燕奇合錄」은 다시 「玄氏八龍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玄氏兩熊雙麟記」는 「明珠奇逢」으로 이어지고 「明珠奇逢」은 또 「明珠玉燕奇合錄」으로 連結되고 있으며 이 「明珠玉燕奇合錄」은 다시 「玄氏八龍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明珠玉燕奇合錄」은 玄氏家에 대한 四部 連作物의 세번째 作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는 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어시의 만승던지 결시 명빈호스 교지를 누리스 회성의 처 구시와 회문의 처 교시를 복합호시는 소명이 누리니 일기 경환호나 이씨 구리공이 정위의 모함을 넘어 인취의 평적호리 진왕이 소적호고 부군을 쓰라 만니 결희의 도라가고 약 간 친척이 경소의 잇고 구부는 노복이 직회였시니 던후 조서호는 소연은 구리공 정충 직결희의 기록호였시미 초던희는 명주 옥연 귀합호는 소연만 기록호부로 다른 말은 다 색히다.」(卷 21)

이 기록으로 우리는 「寇萊公貞忠直節記」(31 권 31 책)가 이 작품의 傍系的 性格을 띤 작품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작품의 권 9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화설 구상서 경닌은 너국공 구준의 지라 충현여익이요 고문화벌이니 지덕 이 과인호고 충의 과일호여 국가의 덕공을 세워 작위 평진왕의 니르고 상충의 충성호미 현상부 일반이라 명진왕이 부인 너시로 급술이 상득호여 칠조삼녀를 두어시니 남풍녀의 기거 출뉴호여 옥슈인번 또더라 조조 성인호고 너의 비야 호로 장성호니 구소저의 방년이 이낙의 빅릭 가러호고 비형이 경숙호니 돈당 부모의 만금 쇼중은 여러 조네 바랄 비 아니라 구소제 강성지쇼로보티 별기니 질이 출어기류호며 던지의 7업손 정릭과 건곤의 무궁호는 도화물 거두어 옥이 기름지며 향이 다스호니 슈정호은 귀부와 뜻치 향기로운 조품이 조성민이티로 호는 사름이라 도부 너공과 부친 진왕이 9네의 쇼연 미호 식광성덕으로 세간의 상덕호는 사름이 업술가 근심호더니 당일의 현상부 연석의 참배호였다가 평태왕 당조 회성을 보미 천고옥인이요 만고거지라 이 진짓 너9의 상덕호는 비필이티 태왕 부조에게 면청호여 쾌락호를 어드니 환회호여 도라왔더니 세월이 물 흐르 듯 호여 낭인 장성호미 이의 혼슈를 성비호여 혼기 다다르미 어시의 현상부 월 성공의서 회성공조로 구소저와 성친호시 돈당 부모와 일가 제친이 두곳기며 것 거 호미 호스 회빈의 가례시로 다르미 업더라」(卷 9)

그런데 「寇萊公貞忠直節記」의 권 1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 세종년간에 화주 현성촌에 구 영이란 사람이 있었다. 處士 조경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三十이 넘도록 血肉이 없어 大將軍 석수신이 그 사람됨을 탐내어 請婚하매 구영은 다시 석소저를 아내로 맞았다. 석부인이 들어와 一男一女를 낳았다.

그런데 조부인이 四十이 가까워서야 一女를 낳고 연이어 딸과 아들을 낳게 되었다. 구공의 기쁨은 컸었고 조부인에 대한 애정은 한층 더해갔다. 석소저의 시기도 커졌다.

구공이 서주 자사로 승임해 갔을 때 석소저는 그곳 文士 유한과 결탁하여 조부인을 몰아낸다. 누명을 쓰고 물러난 조부인은 아들 준과 함께 流浪하다가 老姑의 도움으로 四寸 嫗叔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준이 9세가 되었을 때 그는 기구한 運命을 깨닫고 京師의 外叔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그는 中途에서 母親과 死別하고 子子單身이 되어 京師로 길을 떠난다.

筆者는 아직 「寇萊公貞忠直節記」를 讀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後日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卷1의 內容으로 보아 이 「寇萊公貞忠直節記」는 玄氏家の 며느리의 집안에 대한 記錄이기에 傍系的 性格을 지닌 連作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이 작품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소계 슈용정식 뒤랄 군지 었디 의외지언으로 첩을 도통한시물 어린[○]히[○]치[○]히[○]히[○]니 첩이 붓그려 죽으리로쇼이다 심이 미쇼 왓 일시 회언이라 그디는 용셔[○]하라 소계 목연부디러라 후티의 쇼공진 등과하여 작위 삼티의 니르고 한낫 회첩이 업시 현쇼저로 화락하여 슬하의 오즈이너를 두어 귀이[○]호[○] 설화 쇼현성녹의 잇스므로 이의 쟈히다」(卷 3)

이 記錄으로 우리는 玄氏家の 딸인 현소저가 소씨 집으로 시집을 가서 지낸 說話가 「소현성녹」이라는 작품을 이루고 있음을 알겠다. 이 작품을 우리는 아직 發見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 또한 傍系的 連作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梗 概

宋나라 仁宗 때다. 서평후 현응린의 長子인 회백이 冠禮를 행하는 자

리에 참석한 광평왕은 회백의 사람 됨됨에 마음이 끌리어 딸 옥화군주(벽주)로 請婚을 하였다. 이에 玄氏家에서는 흔쾌히 그 請婚을 받아들였다.

成婚 當日에 숙빈 황씨는 聘物로 보내온 明珠를 보고 猜忌心을 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新郎의 뛰어난 모습에 자신의 소생인 교주와 成婚치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그녀는 마침내 그 혼인을 취저으리라 생각하고 侍女를 부려서 괴상한 말을 하여 新郎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였다.

얼마 후 회백의 아우 회천은 진왕의 아들인 소세현의 딸 혜교소저와 成婚하여 금슬이 좋게 지내고 소공자 세문은 평제왕의 장녀 숙혜소저를 百兩于歸하여 다정한 나날을 보내니 玄府에서는 두 孫婦의 뛰어난데 만족할 뿐 아니라 집안 일이 순조로움에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회백과 옥화군주의 첫날을 본 후로 교주는 옥화군주에게서 玄生을 빼앗아 자기의 恨을 풀려고 했다. 이러한 그녀의 內心에 母親 숙빈 황씨도 찬성했고 큰 오라비 형도 同調했다.

교주는 그녀의 뜻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마침 그때 京師로 姑母인 숙빈 황씨를 찾아온 그녀의 表兄 황축에게 옥화군주를 넘겨 주리라 생각했다. 교주는 옥화군주가 오래지 않아 歸寧할 것이니 그때 그녀를 拉致해서 고향에 돌아가 살도록 하거나 만일 그것이 如意치 않으면 變容丹을 구하여 幻術로써 옥화군주를 拉致할 계교를 꾸미기로 했다.

그 무렵 朝廷에서 과거를 실시했다. 그 과거에서 회백은 文武 兩科에 장원이 되었고 榜眼에는 회천이, 그리고 探花에는 소세문이 參榜의 행운을 누렸다. 회백은 집현전 학사 호가장군에 임명되었고 회천은 한림 학사 동궁사인의 명을 받았으며 기타 新人들도 모두 차례로 실직에 임명되었다.

회백이 參榜 奉職한 후 妻家에 인사하러 갔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된 교주와 숙빈 황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급하게 계교를 행하려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황축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비방이 있음을 말했다. 그는 꿈 이야기를 했다.

한 대장이 나타나 위국 무음군 방연이라 하면서 그가 평생 재조를 다 펴지 못한 까닭으로 원혼이 흩어지지 않아 재세에 報怨 報讐하겠노라 하

면서 손빈을 해하던 칠전 정후서를 네게 줄 것이니 교주로 하여금 자기가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꾀었을 때 그 옆에 한 권의 책이 있더라 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秘方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교주는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그 책을 얻었다. 그후 그녀는 그 책을 바탕으로 옥화군주를 해하는 秘計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옥화군주가 歸寧하였을 때 교주는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군주의 결혼생활을 탐냈다. 이때 왕비 윤씨는 그녀가 王女の 몸으로 閨行이 경솔함을 타일렀다. 그러자 교주는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하고는 책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교주의 이 거동을 본 군주의 부모. 경상궁은 그 어미 숙빈 황씨가 본래 庶出임을 말하고 그 간악한 피가 흐르고 있음과 그녀가 전수재와 不倫의 關係가 있음을 귀뜸하였다.

玄生이 妻家에 갔다가 聘父母와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크게 취했다. 그가 군주의 침소에서 쓰러져 자려고 하는데 문득 後窓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玉人の 佳約이 오늘이어서 어찌 情夫 황생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林下에서 기다리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교주는 숙빈 황씨의 유모 태섭으로 하여금 옥화군주의 시비 매교를 매수하여 그녀를 下手人으로 부려 玄生의 마음을 허물고 군주에 대한 玄生의 애정을 짊으려 했다. 또 그녀는 군주의 화상을 그려 그것에 군주의 흰 옷을 구하여 입히고 저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시비 은심을 心腹으로 알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계교를 그녀에게 털어 놓았는데 은심은 그 수말을 모두 손상궁에게 고하였다. 손상궁은 다시 그 內容을 그대로 왕비 윤씨에게 아뢰었다.

윤비는 그것을 듣고 화란이 있을 것을 걱정했다. 그녀는 이것을 곧 王에게 아뢰고 그들을 依法處置토록 하고자 했다. 그러나 옥화군주는 오는 액은 聖人도 막지 못한다면서 일이 되어감을 보아 처리하자고 했다. 윤비는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교주가 옥화군주에 대한 저주를 계속하고 있을 때 正娘娘 윤비가 급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에 숙빈 황씨와 교주는 왕비의 병문안을

가지 앓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갔을 때 손상궁과 은심 등은 그 저주 현장을 兇戾하여 그곳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말았다.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계획이 무너지자 교주는 한때 失意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行計하기로 했다. 그녀는 황축을 시골로 돌려 보내는 척하고는 그를 몰래 潛入시켜 그녀와 함께 지내도록 했다.

한참동안 세월이 흘렀다. 옥화군주가 친정에 귀근하였을 때 교주는 동생들을 데리고 군주에게 갔다. 인사를 끝내고 교주는 술을 내었다. 군주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았으나 교주의 강권에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한 모금 마셨다. 毒氣가 있음을 안 군주는 무슨 빈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그날 밤 옥화군주는 협실에서 자기로 하고 술이 취한 매교를 군주 방에서 자도록 했다. 三更쯤이 되었을 때 황축이 그곳에 潛入하여 군주 방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매교를 후리쳐 끼고 달아나고 말았다.

날이 밝자 숙빈 황씨와 교주는 기색을 살피기 위해 정궁에 문안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옥화군주가 태연히 앉아 있었다.

일이 失敗하였음을 안 그들은 다시 行計하기로 했다. 이때 교주의 오라비 문회군 형은 옥화군주를 殺害하고 현회백을 여동생의 부군으로 앉히겠다 했다. 그는 틈을 타 칼을 휘두르며 선향루에 侵入하여 옥화군주를 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군주를 해하기는 커녕 울모의 얽혀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옥화군주의 궁아 홍도가 王宮에 심부름을 갔다가 태심의 피에 속아 숙빈 황씨에게 뵈게 되었다. 황씨는 그녀에게 응성한 내접을 하며 머무르게 하다가 그녀를 강물에 던져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는 설매에게 단약을 먹여 홍도의 모습이 되게 한 후 玄相府에 가게 하였다.

홍도를 본 군주는 그녀가 전일과 다른 곳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가 홍도가 아님을 스쳤다. 그녀가 細作이 아닌가 하고 경계를 하라고 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던 현학사 희백이 그들의 私語를 듣게 되었다.

좌우가 조용할 때 현학사는 그 私語의 내막을 물었다. 그러나 군주는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야 하고 듣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끝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군주가 비자 홍도를 放良하려 하였으나 그녀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교집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行計를 계속하였고 또 교주의 母女는 현 혼단을 구하여 王에게 먹였다. 이런 후로 王은 차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교주는 어린 童子를 부려서 玄氏家에 가 흥남이나 경남에게 한 書札을 전하게 했다. 황수재가 옥화군주를 몹시 사랑하고 있고 또 군주가 옛 기약을 어기지 말고 빨리 돌아와 달라는 內容의 것이었다.

현승상이 그 동자를 붙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기를 미리 계산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승상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연루될 것을 걱정하여 그 아이를 놓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서간을 불사르고 말았다.

이런 즈음에 현씨의 태부인이 夢魘하여 혼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症候가 우선하였을 때 그녀는 正堂 난간 아래의 벽 사이를 파도록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木人 매골 등을 發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공은 아들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妖穢之物들을 모두 燒火하고 그것을 不問에 붙이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화군주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하면서 다음 날부터 봉관 옥패를 끄르고 農省에 참여치도 않으며 죄인으로서의 몸가짐을 지켰다. 이에 사마부인은 친히 그에게 나아가 그녀를 위로하기도 했다.

광평왕은 현승상의 一女 옥혜소저를 그의 世子嬪으로 結親하기를 청해 왔다. 이때 玄氏家에서는 王의 미간에 厄氣가 있음을 보고 그 婚事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광평왕의 世子가 월성공주궁에 왔다가 옥혜소저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승상은 그것이 天緣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에게 청혼할 수도 없어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天子에게 아뢰어 그들의 婚事를 賜婚토록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황숙빈과 교주는 끈질기게 凶計를 계속하였다. 교주는 貪官들과 결탁하여 옥화군주를 탄핵하였다. 도어사인 흥법과 추광 등은 군주의 누행이 앵앵전의 것과 같은 것이라 하고 上疏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書書들을 써서 大路 市上에 붙이기도 하였다. 광평왕을 비롯하여 玄丞相 등은 그것이 奸人들의 所行이라고 아뢰고 明察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나 皇

帝는 몹시 노하게 되었다.

具體的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皇帝는 광평왕의 俸祿을 一年間 박탈하고 本宮에 安置케 하는 한편 옥화군주를 玄氏 家門에서 移離하여 수주 낙읍현에 귀양을 보냈다.

군주가 配所로 떠날 때 광평왕은 그녀의 배행을 생각지 않았으나 숙빈 황씨는 그것을 왕에게 권하였다. 왕은 별로 그것에 神經을 쓰지 않았으나 황숙빈이 강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문희군 형으로 그녀의 流配길의 호행을 담당토록 했다.

유배자들이 남강에 이르른 날 夜半에 적도들이 그들을 습격하였다. 적도들은 군주를 拉致하여 달아나고 말았다. 군주가 납치되었음을 확인한 문희군은 그가 말아야 할 군주를 잃었으니 돌아갈 수 밖에 없노라 하며 京師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교주는 자기가 현학사에게 출가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쪽 저쪽을 움직여 그러한 뜻을 玄氏家에 傳하도록 했다. 그러나 玄氏家에서는 옥화군주가 돌아오기 전에는 그 元妃의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고 했다. 교주는 小屋으로도 허물치 않겠다고 했다.

광평왕은 庶女 교주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어 그는 신복궁 관을 玄氏家에 보내어 請婚을 했다. 玄氏家에서는 찬반 兩論이 있었으나 진공의 뜻을 받아 그 청혼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결혼 첫날 현학사는 교주의 얼굴이 곱기는 하였으나 그 얼굴에 毒氣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옥화군주의 화가 이 여인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 밤이 밝자마자 곧 그곳을 나와 本府로 돌아와 바로 入番하였다. 그후 그는 좀처럼 교주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교주는 옥화군주가 돌아오지 못하리니 좀더 참고 지내기로 했다.

妖藥으로 인하여 喪性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광평왕은 황숙빈에게 현혹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는 윤비와 세자 등이 王과 황숙비를 포함한다는 말을 신척하여 윤비와 세자 등을 비실에 유폐하기도 했다.

문희군 형의 아우 문양군 문도 숙빈 황씨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친과 兄, 그리고 교주의 행동에 不滿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교주와 母親의 私語를 듣게 되었다. 母親이 전수재와 不倫의 關係

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주가 옥화군주를 해하고 그 자리를 교주가 잇도록 한다는 등의 흉칙한 것이었다.

그는兄을 찾아갔다. 그는兄에게 제발 그런 일을 中止하도록 말하였다. 그러나兄은 그의 말을 묵살하였다. 이에 그는 그 사실을 아내인 호씨에게 말하고는 그만 自刎하고 말았다. 이에 아내 호씨도 그만 그를 따라 죽고 말았다. 후환을 두려워하던 숙빈 황씨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하였으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함을 느꼈다.

이때 皇帝는 평제왕에게 명을 내려 그가 宮中에 들어와 起居토록 하라고 했다. 그러나 王은 문양군 문의 喪事 때문에 入闕치 못함을 사죄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문의 夫婦가 까닭없이 죽은 연유를 물었다.

오빠 喪事에 歸寧한 교주는 일이 어지럽게 되자 生父인 전수재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이에 숙빈 황씨는 문의 夫婦가 죽게 된 것을 윤비에게 돌리고 그 해를 받지 않으려 鄉曲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했다.

王은 大怒하여 婢子들의 문초에 나섰다. 王이 난아를 문초하였을 때 그녀는 황씨의 후한 회리를 받았는지라 윤비의 명에 따라 毒藥을 넣었노라 했다. 이에 왕은 이 사실을 上疏했고 난아는 국문 도중 매를 못이기고 죽고 말았다.

교주의 오라비의 喪事가 끝나도록 玄家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또 교주가 玄氏家에 돌아가나 아무도 그 상사에 關心을 표하지 않았다. 현학사와 마주치게 된 교주는 그를 붙들고 악을 썼으나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교주는 심복비자 태심으로 하여금 玄氏家 비자들과 사귀게 하는 한편 주방의 비자들을 매수하여 妖藥을 구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如意치 못하였고 마침내 그 일이 사마부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평제왕 현턴닌의 長子 회성이 평진왕 구경닌의 딸 구소저와 成婚했다. 구씨가에서는 신랑의 뛰어난을 기리고 현씨가에서는 신부의 특출함을 옥화군주와 비길 정도였다. 며칠 후 제후가 구소저를 조현하라 하며 평제왕 부부는 그들을 데리고 입궐하자 교주는 이것 또한 못마땅해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옥화군주 때문이라고 했다.

교주는 태섭에게 단약을 먹여 현학사의 심복비자의 얼굴이 되게 하여

현학사와 가깝게 지내던 여인들을 차례로 살해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국공은 그 죄인을 찾아 淑女를 伸白하겠다 했다.

오국공은 사지시녀와 건녀들을 명하여 교주의 협사를 뒤지게 하자 교주는 아무리 태노야이지만 무죄한 시비를 왜 잡아 가느냐고 발악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주의 유아 복첩을 모두 잡아 들였다.

설완이 교주의 케를 열고 증거물을 얻은 한편 태심에게서 복초를 받은 오국공은 그것을 밤세워 써서 上表하였다. 이에 황씨 모녀는 요약을 먹고 얼굴을 변형하여 심부시녀 설매를 데리고 후문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皇帝는 옥화군주의 厄禍를 걱정하였다. 이때 월성공주는 옥화군주를 자기 궁에 숨기고 있었고 그곳에서 生男까지 하였음을 실토하였다. 이때 皇帝는 월성공주의 先見之明에 감탄하였다.

禮部尙書의 長子 현희옥이 범상국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날 현공자를 본 영교는 限死코 현공자에게 돌아가리라 했다. 영교는 범상국의 表弟인 이시랑의 딸이었는데 早失父母한 그녀는 우가와 定婚한 터이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破棄하고 그렇듯 고집하는 것이었다.

범승상은 어쩔 수 없어 玄公에게 간절하게 청혼을 했다. 玄公도 하는 수 없어 그 청혼을 받아 들였다. 이소저를 맞이한 玄氏家에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有法한 것 같아 多幸스럽게 생각하였다.

仲秋 佳節에 과거가 있었다. 이 科場에서 명제왕의 長子 회성이 壯元을 하고 次子 회옥이 둘째로 뽑혔다. 황제는 이 新來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이 外孫인데다가 壯元과 榜眼이란 좋은 成績으로 參榜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회문 회명의 婚事가 있었다. 회문은 연소저를, 회명은 양소저를 각각 아내로 맞았다. 이들은 모두 어렸기 때문에 수년간 各處케 하였으나 결혼 當日만큼은 함께 지내도록 했다.

호부상서 현명년의 長子 회재가 어사 경흠의 딸과 成婚하고 상서령 현봉년의 長子 회량이 태학사 윤숙의 딸과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라에 國母가 없지 못하여 새로 揀擇승을 내려야 한다고들 하였으나 皇帝는 그때 六旬이라 조귀인을 황제로 옹립키로 했다.

이무렵 회문과 회명이 비로소 작소를 열어 부부 동거가 허락되었다. 회명 부부는 단란하였으나 회문은 방일하였고 연소저는 그러한 남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회문은 형수인 구소저의 비자 자란에게 정을 두고 그녀를 내어주기를 청하였다. 구소저는 하는 수 없어 그녀를 내어 주었으나 자란은 죽기로 써 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다. 회문은 그녀를 벽실에 가두어 두고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 주겠노라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물가로 유도하여 물에 밀어 버리고 말았다.

속빈 황씨 母女는 황축을 찾아 일이 잘 되면 玄氏에 대한 원수를 갚으리라 다짐하였다. 신고 끝에 이들은 황축과 만나게 되었고 뒤이어 전기(수재)와도 相逢하게 되었다.

전기는 이들을 만나 매우 기뻐하면서 황씨를 아내의 예로 맞아서 큰 잔치를 베풀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나이가 四十이 넘었으나 그때까지 아들이 없어 교주의 남편으로 代를 잇기로 했다. 그후 전기는 황씨에게 大惑하여 주변 大小事를 모두 그녀에게 맡기고 지냈다.

교주는 術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보다도 待女인 설매가 먼저 通達했다. 이에 교주는 설매를 먼저 京師로 보내어 玄氏家の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토록 했다.

설매는 京師에 잠입하여 行乞을 하면서 광평왕궁과 현승상부의 주변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부에 들어가 얼굴 모습을 바꾸어 자란을 유인하여 蓮池에 밀쳐버리고 자신이 자란이 되어 현회문과 情을 통하며 지냈다.

그해 가을 科擧에서 회문이 壯元, 회명이 探花로 參榜하게 되었다. 對舞 때 회문은 옥단과 심월을 有情하여 그들을 찾을 뿐 자란은 잊고 지냈다. 이에 자란은 화를 내고 현학사에게 미혼단을 먹이는 한편 그의 주변 人物들을 없애고 교주의 鬪이 있을 때 內應하리라 생각하며 지냈다.

설매는 몸이 아파 누워 있는 연소저를 업고 내달았다. 그녀는 연소저를 연못에 버리면서 현생을 닦할 일이지 자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바로 그때 서쪽에서 한 仙人이 나타나 설매를 밀치고 연소저를 앗아갔다. 그 仙人은 연소저의 禍亂을 위로하고 곧 구소저의 시비 자란이 있

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때 연소저는 곧 구씨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그 仙人은 아직 그녀가 禍厄에서 벗어날 때가 아님을 말하며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연소저는 그곳에서 자란을 만났고 또 그녀가 거기까지 오게 된 내력을 알게 되었다.

연소저는 그 仙人의 지시에 따라 男裝으로 바꾸어 입고 있으면서 兵書를 읽어야만 했다. 총명한 그녀는 오래지 않아 上通天門하고 下達地理하기에 이르렀고 兵法 내지는 과거 미래사를 目前의 일같이 알 수 있게 되었다.

희문이 變形 妖女에게 惑하게 되자 요녀는 그에게 혼미단을 먹였다. 그후 그는 그만 넋을 잃고 경노집 후당에서 酒色에 잠겨 지냈다.

진국공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집안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차 모였다. 그때 그는 집안에 화액이 있음과 가내에 妖人이 있음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방비를 하도록 일렀다.

설매가 幻術로 사인 부부를 해하려 하였으나 진국공이 전일 액화를 방비토록 부작을 준비한 탓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굽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玄氏家를 어지럽게 하였다.

구소저가 주부인을 뒤흔치고 있을 때 설매는 구소저로 변하여 육부인에게 가서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인하여 玄氏家에서는 큰 난리가 나고 말았다. 진국공이 구소저를 歸寧케 하자 하였으나 오국공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했다. 그래서 구소저는 私室에 수계되어 出入을 하지 못했다.

도어사 양의가 疏狀을 올렸다. 구소저가 육부인에게 손찌검을 하였는 데도 현공은 구소저를 죄책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綱常의 大罪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皇帝는 구소저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양의의 그 사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죄를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구공과 진공은 言官을 죄 줌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皇帝는 구소저를 定配하고 配성은 娶妻치 못하도록 했다.

좌각노 정숙의 아우 윤의 부부는 그 血肉으로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현사인이 공무로 정각노 집에 갔다가 그 소저와 마

주치게 되었다. 그때 정공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동생이 仙人을 메리고 와서 딸과 宿緣이니 成親케 하라 했다. 이에 정각노는 賜婚의 恩榮을 부탁하였다.

구소저가 流配地에 있을 때 한 때의 無賴輩가 그곳을 습격하고 그 처소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꿈에 避禍하라는 현몽을 얻고 다른 곳으로 옮겨 있었으므로 無事하였다. 그런데도 무뢰배들은 그녀가 燒死한 것으로 알고 京師로 철수하고 말았다.

皇帝가 미명하시더니 이윽고 昇避하시고 太子가 即位하여 英宗皇帝가 되었다. 새 皇帝가 大赦天下하매 구소저도 恩赦를 입을 것이었으나 그 居處를 알 수가 없어 그 은사를 얻지 못했다.

先帝의 三喪이 지났다. 월성공주는 宮內에 들어가 太后를 만나 그녀를 위로하고 돌아왔으나 자신은 슬픔에 잠겨 거의 生活을 잇을 지경이었다.

구소저가 配所에서 지내고 있는데 회영이 封書를 가지고 왔다. 그녀의 赦免을 담은 사연이었다. 구소저는 天恩에 감격하고 원역이 신설되었음을 기뻐하였다. 京師에 돌아온 그녀는 존당 구고계 청취하였고 또 뒤이어 그녀는 副室 정소저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왕은 구소저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마장은 없을 것이니 부부 화락하고 정소저를 보살피 女英의 道를 다해주시기를 일렀다.

이때 變報가 이르렀다. 파서 농문지방에 응거한 전기와 황축 그리고 황씨 母女 등이 反旗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朝廷에서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광평왕이 討賊에 自願하여 나서자 병부상서 현회백이 王과 함께 가기를 희망했고 회문도 따르겠다고 했다. 광평왕이 大元師로, 현회백이 부원수 그리고 현회문이 참모사로 任命되어 떠났다.

현승상의 畢子 회계가 이부상서 노공의 외동딸과 成婚했다. 노공이 致仕하매 그의 老年이 孤孤함을 생각한 현승상은 회계를 山東地方에 있는 그 妻家를 따라가 아들 노릇을 하도록 했다.

광평왕은 出征時 中途 迎接을 一切 허락치 않았다. 그들은 파서지방의 刺使에게서 賊情을 듣고는 곧 그들에게 投降하라는 檄書를 보냈다. 광평왕과 병부상서 등이 出征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도적들은 대단한 적개심을 품으며 곧 싸우려 했다.

이때 교주는 그동안 제가 터득한 재조를 보이려고 먼저 나가 싸웠으나 피차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후 元帥와 賊들은 서로 神經戰을 펴면서 서로 대치하였다.

적들이 자주 싸움을 돋우어 왔으나 元帥 쪽에서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적들은 術法을 쓰며 싸움을 돋우었다. 이에 정간이 나가 싸웠다. 적들은 정간을 끌어들이니 다음 眞言과 術法을 써서 그를 生捕하고 엄살한 후 정간의 首級을 元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官軍에서는 陣中을 재정비한 후 다시 싸움에 임했다. 그러나 그들은 승부를 내지 못했다. 교주는 자주 術法을 써서 官軍을 교란하였고 官軍에서는 이것에 대비하느라고 힘을 기울였다. 이때 희문이 나가 싸우다가 교주가 쏜 화살에 맞았다. 이 상처로 인해 현 참모는 혼혼한 지경에까지 빠졌다. 이에 官軍에서는 榜을 붙여 名醫를 公募했다.

연소저와 자란은 그동안 道을 닦고 의술을 익히고 했다. 그때 그의 스승 大師는 그들의 화란이 다하였음을 말하고 현참모의 위기를 救하도록 했다. 연소저와 자란은 物外客이라 이름하고 軍中에 들어가 현참모의 상처를 보살피며 그 적들의 平定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참모의 病床에 이르러 힘이 센 사람으로 그를 붙들게 하고는 大師가 준 가르침으로 참모의 상처 있는 팔을 찌르니 나쁜 피가 독한 냄새를 풍겼다. 또 은전도로 푸르고 검은 살을 긁으니 그 소리가 요란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간담을 떨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신통스러운 醫術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후 참모의 病勢는 차차 차도가 있고 회복하게 되었다.

현소저와 자란이 加勢한 후 싸움의 형세가 호전하게 되었다. 황씨 모녀가 幻術을 썼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전기와 황축이 나가 싸웠으나 大敗하였다. 그후 적들은 그만 戰意를 喪失하고 달았다.

회복한 참모가 出戰키를 願하였을 때 元帥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으나 物外客의 주청이 있어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가 싸움에서 勝戰하자 교주가 다시 나와서 幻術을 썼으나 物外客과 對敵하여 크게 敗하였다. 한편 자란과 참모는 적의 산채에 들어가 적진을 분탕하고 전기를 生捕하

여 돌아왔다.

광평왕과 원수 그리고 참모 등은 그들의 勝戰記를 軍記에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物外客은 그것에 反對하며 끝내 그들의 本體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宦路에 나갈 것을 권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靑白雲이 서로 다름을 고집하였다.

物外客을 흠모하던 참모는 그들을 미행하다가 그들의 私語를 듣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참모의 그러한 행동이 禮가 아님을 힐난하였다. 그리고는 그곳을 몰래 빠져 나가려 했다.

행리를 차리는 자리에 참모가 왔다. 자란이 물건을 챙기다가 반쪽짜리 구슬을 흘리게 되었다. 그때 참모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반쪽 구슬이 튀어나와 두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구슬이 되었다. 이것으로 참모는 物外客이 연소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확인하자 참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려웠던 사정들을 말했다. 연소저도 자신의 겪은 바를 낱낱이 말하고 그러한 歷程을 겪은 자신은 閨行에 어긋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生涯를 山中에서 지내겠노라 했다.

현원수는 참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참모는 지난날 女姓이 너무 강열함을 싫어하던 버릇을 고치고 연소저와 和氣를 잇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현원수는 연소저에게 가서 그녀의 지난 歷程이 家門의 厄이며 아우의 不明임을 말하고 그녀의 탓이 아님을 말하였다. 그는 또 小節을 생각지 말고 大節을 따름이 옳음을 말하고 자란을 데리고 上京함이 마땅함을 일렀다.

예부상서 현희천이 皇帝의 詔書를 가지고 왔다. 모두 還京키로 했다. 연소저는 道服을 벗고 女服으로 바꾸어 교자에 올랐으며 많은 軍官이 그녀를 호행했다.

모든 일이 처리되었을 때 皇帝는 이제야 베개를 높이 베고 자겠다 하면서 그것이 모두 玄氏家 諸人の 功이라며 많은 금은 옥백을 賜給하였다. 이후 百年間 마장없이 잘 지내었는데 자세한 것은 後錄인 玄氏八龍記에 있다. 善惡의 報應이 이와 같도다. ■